백화점, P코로나 채비 본격화… 동탄·대전 등 신규오픈 예고

현대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 오픈
롯데 쇼핑몰형 백화점 오픈 예정
신세계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 개점

롯데백화점 동탄점 조감도 /롯데쇼핑

대전신세계 조감도 /신세계그룹

코로나19 속에서도 오는 8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나란히 신규 점포 문을 연다. 2021년은 백화점 3사(롯데·신세계·현대)에 의미있는 해다. 신규출점 '제로'를 깨고 2016년 이후 5년만에 같은 해 오픈하는 것.

출발선은 현대백화점이 끊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열었다.

그리고 8월 롯데백화점이 경기도에 동탄점을 연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쇼핑몰형 백화점을 콘셉트로 한다. 영업 면적 2만 300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초대형 규모로 들어선다. 영업 면적으로는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동탄역 복합환승센터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다.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도 인접해 고객들의 발길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을 통해 수도권 남부를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외명품과 패션소비를 즐기는 3040대 육아맘을 주요 타깃으로 해 동탄 지역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롯데쇼핑 측은 "동탄점을 프리미엄 브랜드와 각종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매장으로 만들어 경기 남부 상권의 3040대 구매층을 흡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8월 대전 지역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대전 유성구에 연면적 28만3466㎡ 규모의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개점한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는 지하 4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사이언스타워와 판매시설인 백화점 등이 들어선다. 기존 대전 지역 1위인 갤러리아 타임월드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충청권 전체를 배후수요로 보고 명품 브랜드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시설을 넣어 지역 1위에 올라서겠다는 계획이다.

백화점 업계는 올해 신규출점이 오프라인 유통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백화점 부문은 코로나19로 인한 보복소비, 명품 선호 트렌드로 인해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6832억원, 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336%가 늘었다. 신세계는 매출액이 1조3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36억원으로 3659%가 뛰었다.

롯데쇼핑의 경우 매출액은 3조8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618억원을 기록하며 1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그 보상으로 명품 매출이 늘어났으며, 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패션·잡화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월 문을 연 '더현대 서울'은 오픈과 동시에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로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 개념을 적용한 '더현대 서울'은 백화점 안에 실내 공원과 인공 폭포를 선보이는 등 기존 백화점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공간 디자인과 혁신적인 매장 구성으로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오픈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우선 매수권 행사한 성정… 28일부터 정밀실사

이스타항공 인수전

쌍방울 광림 제시조건 1100억 수용
자금 여력 의구심… 인수 확신 일러

이스타항공이 끝내 새 주인으로 종합건설업체 '성정'을 맞게 됐다. 다만 최종 인수까지 마무리할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게 문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 성정은 이날 오전 9시 이스타항공 매각 주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밝히고, 서울회생법원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던 쌍방울그룹 광림과 우선 매수권자였던 성정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끝내 성정에서 쌍방울그룹 광림이 이스타항공에 제시했던 인수 조건을 받아들여 우선 매수권을 행사키로 해 사실상 새 주인이 되게 됐다.

성정은 앞서 지난달 14일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로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1000억 원의 인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광림은 이보다 더 큰 약 1100억 원을 인수금액으로 본입찰에 써냈지만, 성정이 인수금액을 올리면서까지 이 같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완전히 인수하기까지는 일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양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아직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밀실사가 남았고, 성정의 자금 투입 여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매각주간사는 10여 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지만, 예비실사 이후 쌍방울 광림만 단독으로 본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실사 후 예상과 다른 이스타항공의 부채 등에 부담을 느껴 본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성정은 코로나 여파로부터 항공업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버틸 자금의 여력이 충분한지도 의심받고 있다. 성정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9억 원, 5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억8500억 원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시 당장 2,5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며 노조와 다툼을 벌여온 만큼 성정이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13일 "이스타항공 인수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해야 한다"라며 "대량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귀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킬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손병환 HN농협금융지주 회장(왼쪽 다섯번째)과 권준학 농협은행장(네번째)이 농협금융 브랜드데이 행사 후 임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국민과 함께 성장… 더 나은 금융으로 보답"

NH농협금융 브랜드데이

손병환 회장 "전문서비스 경험 확대"

NH농협금융은 1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2021 NH농협금융 브랜드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부터 농협금융의 다양한 브랜드 자산을 바로 알고,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전시공간에는 지난 2012년 농협금융지주 출범 이래 고객의 사랑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농협금융의 대표 슬로건·캐릭터·상품 및 서비스 브랜드가 탑처럼 쌓여 하나의 상징물로 표현됐다. 또한 오랜 세월 농업·농촌·농업인과 함께 해 온 '농협'의 심벌마크(심)를 전면에 내세운 포토존을 설치해 60주년을 맞이한 농협브랜드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손병환 회장과 권준학 은행장은 출근길 임직원과 함께 전시물을 관람하며 농협금융 브랜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손 회장은 "NH농협금융은 100% 민족자본을 바탕으로 전국 방방곡곡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한 브랜드"라며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룹 공통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고객의 생활 매 순간,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변함없이 금융전문가로서 함께하겠다는 임직원 모두의 의지를 표명해 왔다.

NH농협은행은 간편한 가입으로 생활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올원뱅크'와 대표 캐릭터 '올리&원이', 개인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NH자산플러스' 등 여덟 가지 브랜드를 선정해 전시했다.

특히 2016년 런칭 이후 700만 명이 넘는 고객의 선택을 받은 올원뱅크는 예금·대출·보험·카드 등 금융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농협금융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은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하는 임직원의 진심을 담은 '내맘같이'와 '헤아림'을 각자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정해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건강한 투자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MTS 브랜드 '나무'는 편리한 조작법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자체·특수관계 코인 상장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다. 법인·단체 고객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 동명이인을 식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의 위험평가 기준 대상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정금융정보법 5조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는데, '고위험 고객'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고 업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유리 기자 yul115@